

묵향이 감도는 추사고택

The Chusa's Old House Where Incense of Ink in The Air



김득수 | Kim, Deuk-su, KIRA
대한건축사협회 감사

들뜬 마음도 달랠 겸해서 공해와 소음으로 찌들린 삭막한 도심 공간을 떠나 대자연의 품에 안겨봄도 괜찮을 것 같다. 싱그러운 바람 부드러운 햇살을 받으며 감미로운 철따라 가족나들이 장소로는 추사 김정희 선생의 고택이 아주 적격, 멀리 나가지 않고도 파사로운 햇살과 잔디밭의 되살아나는 생명의 지순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고 온갖 고뇌와 답답할 때 무념무상의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는 곳이기엔 더욱 좋다. 고택의 한낮에는 마치 오랜 세월이 고여있는 듯 정적에 쌓여 있어 모처럼 침잠 속의 사색여행도 가능케 한다. 특히 이곳은 역사의 발자취를 더듬어 볼 수 있어 자녀들을 동반한 야외 나들이로는 으뜸이다.

추사 김정희 선생은 1786년 6월 3일 예산군 신암면 용궁리에서 태어났으며 조선 시대 문향의 대표적인 인물이다. 자신의 서체인 추사체와 고증학을 도입, 경학, 불교학, 금석학, 지리학, 천문학 등에도 박통한 것으로 유명하며 세한도는 국보로 지정되어 있기도 하다.

고택은 차령산맥이 머리를 북북서로 돌려 응봉의 팔봉산을 세우고 이 산이 다시 북쪽으로 올라와 신암면 용궁리에 단아한 삼각혈의 깔끔한 산을 이룬 용산자락에 80.5평 규모로 세운 이른바 양반 대가집이다. 추사 김정희 선생이 태어난 집으로 증조부인 월성위 김한신(月城尉 金漢薰)이 건립한 것으로 전해진다.

서쪽에 안채가 있고 한층 낮은 동쪽에는 사랑채가 있다. 안채는 6칸 대청과 2칸통의 안방과 건너방이 있으며 부엌과 안대문 협문, 광 등을 갖춘 트인 곳이 없이 완벽한 ‘ㄱ’자형의 집이다. 안방과 건너방 밖에는 각각 툇마루가 있고 부엌 천정은 다락으로 되어있다. 안대청이 높고 안마당 크기가 작아 폐쇄감이 강하게 느껴진다. 사랑채는 소슬대문을 들어선 마당에 ‘ㄱ’자형의 남향집이다.

남쪽에 한 칸 동쪽에 2칸의 온돌방이 있고 나머지는 대청과 마루로 되어 있다. 댓돌 앞에는 “석년(石年)”이라고 새겨져 있고 추사가 제작했다고 전하는 돌기둥이 있는데 이 기둥의 그림자로 시간을 측정했다고 한다. 안채와 사랑채의 기단은 길게 다듬은 돌로 반듯하게 처리하고 사각의 주춧돌을 놓았다. 퇴보와 대들보가 같은 높이에 있고 지붕은 홑처마에 팔각지붕인데 사랑채는 ‘ㄱ’자형 평면으로 대문쪽에서부터 대청과 사랑방 2칸이 이어지고 안채쪽으로 꺾인 부분에 두 칸 마루방과 온돌 1칸이 연결되어 있다. 방과 대청의 정면으로 반 칸의 툇마루가 연결되고 사랑방 끝에 반 칸을 내어 아궁이 함실을 두었다.

사랑채의 함실부분에는 지형의 경사가 심하여 맞배지붕으로 층을 지게 하였다. 가장 좋은 모임은 아내와 자식과 손주, 가장 좋은 음식은 두부, 야채, 생강(高會夫妻兒女孫, 大烹豆腐菘 薑菜) 고회부처아어손, 대팽두부고강채이란 글을 비롯 추사의 명필이 기둥마다 걸려있다.

필자는 한양대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에서 건축공학과 건축계획전공 석사를 취득했다. 에너지관리공단 신도시·관광단지심의위원을 역임한 바 있으며, 서울건축사회 영등포지역건축사회 회장과 대한건축사협회 이사, 에너지설비분과위원장 역임, 서울건축사회복지회 신용협동조합 이사, 감사, 서울건축사회 부회장 및 회장 직무대행을 역임했다. 종합건축사사무소 S.S.P. 삼대 대표로 재직 중이다.

고택의 한낮에는 마치 오랜 세월이 고여있는 듯 정적에 쌓여 있어
 모처럼 침잠 속의 사색여행도 가능케 한다.
 특히 이곳은 역사의 발자취를 더듬어 볼 수 있어
 자녀들을 동반한 야외 나들이로는 으뜸이다.

화순옹주 정려문 지방문화재 43호의 추사선생의 예술적 활동을 가능케 한다. 고옥
 뜨락에 목련, 매화, 향내음과 묵향은 새삼 추사선생의 경이로움에 저절로 빠져들게
 한다. 고택을 돌아나오면 넓직한 잔디밭 위에 추사선생의 묘소가 있고 추사고택을
 중심으로 오른쪽으로는 화순옹주와 월성위 김한신의 합장묘가 있고 그 옆으로 정조
 가 내린 열녀문이 있다. 조선 영조의 둘째딸로서 13세에 영의정 김홍경(金興慶)의 아
 들 월성위 김한신(月城尉 金漢薰)과 결혼한 화순옹주의 열녀정문(烈女旌門)이다.

추사 김정희 증조부이기도 한 김한신(1720~1758)은 벼슬이 수록대부 오위도총관
 (綬綠大夫 五緯都總管)에 이르렀다. 부군이 38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뜨자 옹주는
 식음을 전폐하고 영조의 말림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뒤를 따르자 영조는 옹주가 부왕
 의 뜻을 저버린 데 대한 아쉬움 때문에 정문을 내리지 않았으나 후대에 정조가 그 뜻
 을 기리기 위해 세운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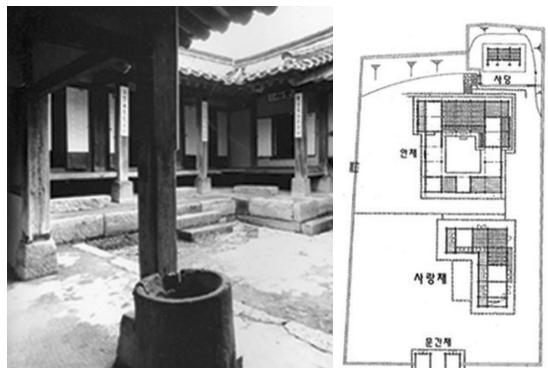
약 200여평의 대지 위에 낮은 담장을 두르고 출입문의 정면에 홍문을 세웠다. 건물
 은 정면 8칸 측면 1칸으로 중앙의 오른쪽간에 문을 내었고 문의 정면에 홍살을 세우
 고 문 위에는 붉은 칠을 한 현판이 걸려있다.

이 곳에서 옆으로 400m쯤 걸으면 천연기념물 106호인 「예산의 백송」이 200년의 기
 구한 역사를 간직한 채 우뚝 서 있다. 백송은 추사선생이 25세 때 청나라 연경에서
 돌아올 때 가지고 와 고조할아버지 김홍경의 묘 입구에 심은 것으로 요즘에 너무 오
 래된 탓인지 치료를 받고 있다.

오서산 중턱에 위치하고 백제 때 창건한 화암사의 년대는 미상이나 삼국시대의 고찰
 이라고 한다. 추사 김정희 선생의 증조부인 월성위 김한신이 조선 영조의 부마가 되
 었을 때 별사전(別賜田)으로 분급된 일대의 전토에 포함되어 그 일면에 세습되었다.
 1752년(영조 28년) 월성위가 증건하였으나 그 후 대웅전은 소실되고 요사체(寮舍體)
 만 남아있다.

이 곳 오서산 화암사는 추사선생이 불교에 정심(情深)하였고 1846년(현종 12년) 제
 주도 적소(謫所)에서 문중에 서한을 보내어 증건을 지시한 사실이 있었다. 이 곳에
 추사 선생의 친필인 「무량수각(無量壽閣)」, 「시경루(詩境樓)」 등 편액이 있고 이 외에
 도 뒤편 오서산 암벽에는 친필을 새긴 암각문 내용은 좋은 경치라는 시경(詩境) 불교
 와 유교가 어우러진 집이라는 천축고선생택(天竺古先生宅, 도지정 기념물 제151호)
 등 석각 글씨가 선명하게 암각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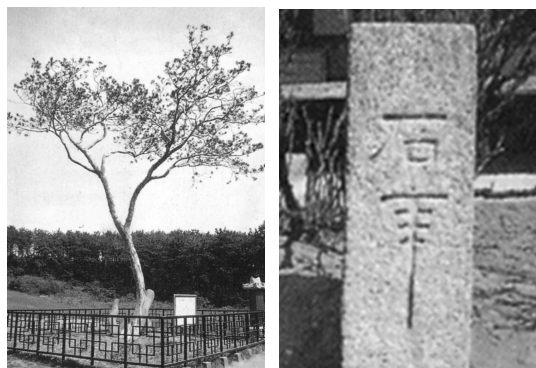
이와 같이 이 일대는 조선 후기의 사상가요 정치가이며 예술가였던 김정희 선생의
 숨결이 가득차 있는 곳으로 추사 선생의 모든 것을 체험할 수 있다. 圖



좌 : 안채내부공간, 우 : 김정희선생 고택 배치도



사랑채의 아궁이, 내부



좌 : 예산백송, 우 : 석주(石柱, 해시계, 石年)



예산 오서산 화암사